



22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5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경기. LG 선수들이 승리한 뒤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엘롯기, 사상 첫 가을야구 '단꿈'

(LG·롯데·KIA)

LG 2위·롯데 3위·KIA 4위 순항 포스트 시즌에 함께 간 적 없어 하위권 팀 맞아 승수 쌓기 나서 KBO 새 역사·기록 쓸지 관심



'엘롯기'는 2000년대 누리꾼들이 프로야구 대표 인기 구단인 LG 트윈스, 롯데 자이언츠, KIA 타이거즈의 한 글자씩을 따서 만든 단어다.



19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에서 4-3으로 승리한 롯데 선수들이 기쁨을 나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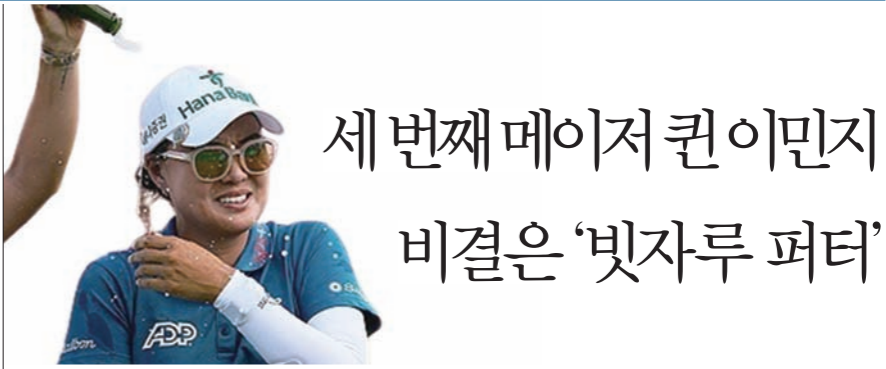


1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kt wiz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KIA 위즈덤이 7회 말에 투런 홈런을 날리고 홈인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오랜 세월 하위권에 머물러 있던 세 팀을 때로는 비꼬는 의미로, 때로는 동정하는 뜻을 담아 '엘롯기 동맹'이라 불렀다. 오랜 세월 암흑기를 보낸 세 팀은 단 한 번도 포스트 시즌에 함께 진출한 적이 없다. 1995년엔 LG가 2위, 롯데가 3위, KIA의 전신인 현대 타이거즈가 4위에 올랐으나 34위 팀의 승차가 3.5경기 이상일 경우 준플레이오프를 치르지 않는다는 당시 규정에 따라 세 팀의 동반 가을야구 진출이 무산됐다. '엘롯기'의 뉘앙스가 올해는 바뀌는 분위기다. 사상 첫 세 팀의 동반 가을야구 진출 가능성이 모락모락 피어나기 때문이다. 2위 LG는 1위 한화 이글스에 한 경기 차로 뒤진 2위를 달리고 있고, 3위 롯데는 최근 4연승을 달리며 LG를 한 경기 차로 쫓는다. 부상 선수들이 속출해 중하위권에 처져 있던 디펜딩 챔피언 KIA도 최근 6연승을 내달리며 단독 4위로 올라섰다. 세 팀은 24일부터 26일까지 나란히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승수 쌓기에 도전한다. KIA는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최하위 키움 히어로즈와 대결한다. 최근 7경기에서 6승 1무를 기록하는 등

안 KIA 선발 투수들은 모두 5이닝 이상을 책임지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2024년에 입단한 오른손 투수 성영탁은 1군 무대에 데뷔한 지난 달 20일 kt wiz전부터 최근 13경기에서 17%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 내며 호랑이 군단의 허리를 책임지고 있다. 그는 지난해 키움 히어로즈 김민범이 세운 데뷔전 이후 최다 연속 이닝 무실점 기록(19%이닝)에 도전한다. 올 시즌에도 간재를 과시하는 KIA의 베테랑 최형우는 역대 최초 1700타점 기록에 2개를 남겨 두고 있다. LG는 수원에서 kt wiz를 만난다. LG의 최근 분위기는 썩 좋지 않다. 외국인 선발 투수 엘리 에이저 에르난데스와 요니 치리노스가 컨디션 난조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선발 투수 임찬규와 손주영도 체력 안배 차원에서 쉼 여파로 최근 7경기에서 2승 1무 4패에 머물렀다. 마무리 투수 박영현이 최근 등판한 5경기에서 모두 안타를 허용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빼아프다. LG는 kt와 3연전을 치른 뒤 잠실에서 KIA를 만난다. 두 팀의 격차는 3.5경기 차다. KIA는 시리즈 결과에 따라 쌍둥이 군단을 턱밑까지 추격할 수도 있다. 롯데는 24일부터 26일까지 창원NC파크에서 8위 NC와 방문 3연전을 치른 뒤 27

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kt와 홈 3연전을 치른다. 롯데는 최근 부상 선수들이 속출한 가운데서도 탄탄한 팀워크로 4연승을 내달렸다. 다만 롯데는 연승 기간 모두 3점 차 미만의 점수를 펼쳤고 핵심 볼펜을 무리하게 활용했다. 이 기간 정현수와 김원중은 3연 투했고 정철원은 4경기에 모두 등판했다. 단독 선두 한화는 삼성 라이온즈와 SSG 랜더스를 차례로 만난다. 왼쪽 내전진 통증으로 6일 엔트리 말소된 한화의 베테랑 투수 류현진은 6연전 기간 복귀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상에서 복귀한 문동주와 '78억 원의 사나이' 엄상백이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 걸린다. 한화는 외국인 선발 투수들과 토종 선발 투수들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만큼 우천 취소 여부에 따라 이번 주 팀 성적에 갈릴 수도 있다. SSG는 28일 한화와 홈 경기에서 김강민 한국야구위원회(KBO) 전력강화위원회의 은퇴식을 연다. 한화에서 현역 마지막 시즌을 보낸 김 위원은 23년 동안 땀 인전에서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다. 훈련 중 타구에 눈가를 맞아 1군에서 말소됐던 SSG 간판타자 최정은 24일 복귀할 예정이다. 그는 KBO리그 최초 20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 기록에 홈런 1개를 남겨 두고 있다. 스키아테릴라연합뉴스



# 세 번째 메이저 퀸이민지 비결은 '빛자루 퍼터'

### KPMG 여자PGA 챔피언십 우승... 20개월 만에 11번째 트로피

호주 교포 이민지(사진)가 20개월 동안 이어졌던 우승 갈증을 메이저 대회에서 씻었다. 이민지는 23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프리스코의 필즈랜치 이스트 코스(파 72)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PGA 챔피언십(총 상금 1200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2오버와 74타를 쳐 합계 4언더파 284타로 우승했다. 교포 오스틴 김(미국)과 잔네티 완나센(태국) 두 명을 3타 차로 따돌린 이민지는 2023년 10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 이후 20개월 만에 LPGA 투어 대회 11번째 우승 트로피를 손에 넣었다. 메이저 대회 우승은 2021년 아문디 에 비앙 챔피언십, 2022년 US여자오픈에 이어 세 번째다. 이제 8월 AIG 여자오픈 또는 내년 세브론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완성한다. LPGA 투어 메이저 대회에서 3승을 올린 호주 선수는 카리 웹, 켈 스티븐스에 이어 이민지가 세 번째다.

우승 상금 180만 달러를 받은 이민지는 단순해 상금랭킹 1위(261만124달러)로 올라섰다. 지난해 상금랭킹 43위로 2015년 데뷔 이후 최악의 시즌을 보냈던 이민지는 메이저 대회 우승으로 다시 최정상급 선수로 부활했다. 지난해 퍼팅 부진에 시달렸던 이민지는 특히 이번 시즌부터 들고 나온 빛자루 형태의 브룸스틱 퍼터로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올라 주목받았다. 이민지는 중·장거리 퍼트는 매우 잘하는 편이지만 2m 이내 짧은 퍼트를 자주 놓치는 약점을 보완하려고 이번 시즌 개막전부터 브룸스틱 퍼터를 쓰고 있다. 지노 티따군(태국)에게 4타 앞선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이민지는 강한 바람과 빠르고 단단한 그린 탓에 고전하며 6번 홀까지 3타를 잃었지만, 티따군도 타수를 잃어서 선두는 지켰다. 오히려 한참 뒤쳐져 있던 오스틴 김과 완나센이 타수를 줄이며 추격했다. 하지만 이민지는 14번(파5)과 15번 홀(파4) 연속 버디로 4타 차까지 달아났다.

# 탁구 임종훈·신유빈 WTT 혼합복식 우승

한국 남자탁구 임종훈(한국거래소)이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스타 컨텐더 류블라나 2025'에서 혼합복식과 남자복식 우승을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다. 임종훈은 22일(한국시간) 슬로베니아 류블라나에서 열린 대회 혼합복식 결승에서 신유빈(대한항공)과 호흡을 맞춰 브라질의 우고 칼데라노-브루나 다카하시 조에 3-0(12-10 11-7 11-7)의 대승을 누렸다. 이로써 작년 파리 올림픽과 올해 도하 세계선수권에서 잇달아 동메달을 수확했던 임종훈-신유빈 조는 지난 3월 WTT 첸나이 대회 제패 후 3개월여 만에 우승하며 WTT 시리즈 혼합복식에 복귀했다.



WTT 류블라나 혼합복식 중신 신유빈(오른쪽)과 임종훈. WTT 인스타그램 캡처

혼합복식 세계랭킹 5위인 임종훈-신유빈 조가 세계 2위 칼데라노-다카하시 조와 듀스 대결을 벌인 첫 게임을 따내며 기선을 잡았다. 6-6, 7-7, 9-9로 팽팽한 동점 랠리를 이어가다 맞은 듀스에서 왼손 임종훈이 기회를 만들고 오른손 신유빈이 과감하게 공격해 먼저 점수를 뽑았고, 두 번째 득점 기회도 놓치지 않으며 1게임 접전을 12-10 승리로 장식했다.

**누가 위대한 지도자인가**  
헌신과 열정의 파노라마  
최 광 지음

The BUCK STOPS here!

위대한 지도자의 출현을 대망한다

이승만 | 조지 워싱턴 | 콘라트 아데나워 | 리관유 | 사카모토 료마 | 에이브러햄 링컨 | 윈스턴 처칠 | 마거릿 대처 | 키스 조셉 | 로널드 레이건 | 박정희 | 전두환 | 김재익 |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 덩샤오핑 | 토머스 제퍼슨 | 프랭클린 루스벨트 | 당 태종 | 이세민 | 요시다 쇼인 | 후쿠자와 유키치 | 관중

복앤피플

## 누가 위대한 지도자인가

### 헌신과 열정의 파노라마

역사를 살펴보면 위대한 지도자들은 각기 다른 시대적 소명을 띄고 태어났다.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자유의 본질을 설파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굴레를 해소하려 했던 지도자, 식민 지배로부터의 독립과 건국을 위해 헌신했던 지도자, 인간의 정신과 삶을 피폐하게 하는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거나 공산주의를 멸망시킨 지도자, 가난한 국가를 경제 대국으로 바꾼 지도자, 혼란과 분열의 구렁텅이에 빠진 나라를 구한 지도자 등 그 내용이 참으로 다양하다.

## 위대한 지도자의 출현을 대망한다

이승만 | 조지 워싱턴 | 콘라트 아데나워 | 리관유 | 사카모토 료마 | 에이브러햄 링컨 | 윈스턴 처칠 | 마거릿 대처 | 키스 조셉 | 로널드 레이건 | 박정희 | 전두환 | 김재익 |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 덩샤오핑 | 토머스 제퍼슨 | 프랭클린 루스벨트 | 당 태종 | 이세민 | 요시다 쇼인 | 후쿠자와 유키치 | 관중

최 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현 대구대 경제금융학과 석좌교수

복앤피플 (02-2277-0220)